

2022학년도 논술고사 (인문계열, 2교시)

1. 제시문 및 문제

다음 제시문을 읽고 그 내용에 근거하여 문제에 답하십시오.

〈가〉

AI는 잘 짜인 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푸는 방법과 관련이 있는데, 어떤 문제든 가장 정확하고 빠른 해법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알고리즘은 다양한 해법 중 가성비가 가장 높은 최적의 경로를 찾도록 설계돼 있다. 페이스북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글을 추천하고, 넷플릭스가 감쪽같이 내가 좋아할 만한 영화들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것도 알고리즘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선 이런 추천 서비스가 선택과 결정의 피로도를 덜어주고, 기업 입장에서선 매출 신장을 위한 최적의 콘텐츠를 제공해줄 수 있으므로 서로 윈윈(win-win)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동시에 보편적 합리성을 지향하므로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대니얼 카너먼(Daniel Kahneman)은 이성적인 심사숙고보다는 감정이나 몇몇 소수의 단서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리는 인간의 직관적 판단은 ㉠편향(bias)에 의한 오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복잡한 환경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는 인간의 직관보다는 알고리즘에 의한 판단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자신의 주변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에 제한이 있으며, 비록 모든 정보를 얻었다 하더라도 모든 경우의 수를 비교·분석하여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은 알고리즘에 대한 어떠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많은 사람이 합성이나 인위적인 것보다 자연스러운 것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성에 근거한다. 그러나 알고리즘이 일상생활에 끼치는 역할이 앞으로 계속 확대되면 알고리즘에 대한 적대감은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제 대중은 스포츠 세계에서 선수들의 연봉과 같은 결정을 내릴 때 알고리즘 공식에 의한 판단이 인간의 판단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알고리즘에 의지하는 일이 늘어나면 결과의 패턴을 처음 직면할 때 느끼는 불편함도 줄어들 것이며, 직관적 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편향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카너먼은 주장한다.

그러나 AI의 알고리즘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사용자들의 기본 패턴을 좇아 콘텐츠를 추천하기 때문에 평소 자신이 가진 취향과 생각만 더욱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개인의 주관과 인식을 왜곡할 수 있으며, 사고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더욱 ㉡강화된 편향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며 자신과 다른 생각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이 극대화되면 올바른 사고의 발전을 가로막고 결국엔 나와 타인을 분리하여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게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알고리즘의 목적지향성과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는 AI도 결국 데이터 수집의 대상인 인간의 취향과 경향성에 맞춰가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일종의 ‘정보 편식’이 심해질 수밖에 없으며, 사회 구성원 간의 분열을 촉진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

빅데이터, 기계학습 등 알고리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공정경쟁 이슈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향후 더욱 강화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공정경쟁 이슈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학습할 때 데이터, 비용 그리고 시간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된다. 특히, 많은 이용자와 자본을 보유한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유지해나갈 가능성이 크다.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관련된 대표적인 공정경쟁 이슈는 알고리즘 담합과 알고리즘 소비자 문제이다. 알고리즘 담합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경쟁 기업들의 가격 정보를 파악하여 자동으로 가격을 변경함으로써 경쟁 기업보다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것으로 이는 알고리즘이 인위적인 목적성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알고리즘 소비자 문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발달하고 소비자의 소비에 점점 더 깊이 관여하게 될수록 인공지능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알고리즘에 편향적으로 의존하게 될 것이다. 소비자들은 검색엔진 결과에서 상위에 있는 결과들 위주로 보기 때문에 상위에 위치하지 못하는 결과들은 소비자들로부터 거의 선택 받지 못하게 된



다.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한 자동검색 서비스, 자동 배정 및 자동 배차 서비스 등은 보통 자사 플랫폼에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만약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이 자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차선의 혹은 편향된 결과를 제공할 경우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성공적인 온라인 플랫폼은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자와 이용자를 연결하고, 이용자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많은 사업자와 서비스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혁신적 플랫폼은 참여자들 사이에서 시간, 노동, 자원 등을 공유하여, 사회 전체적인 효용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더불어 이용자는 다양한 경로로 각각 얻어야 했을 재화나 용역을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플랫폼을 통해 무수히 많은 이용자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기존보다 수익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혁신을 바탕으로 한 플랫폼은 기존 시장에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접목함으로써 시장을 더욱 스마트하게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 부동산 플랫폼 기업의 경우 자동화된 AI 알고리즘을 통해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정 수준의 가격을 제시하고, 이후 집주인이 이에 동의하면, 실사를 거쳐 약 48시간 만에 그 집을 매입한다. 이 기업은 AI 기술을 통해 최대한 정확히 시세를 추정하여 매입함으로써, 고객이 주택 매매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주고 있다.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공인인증서 혹은 보안카드로 대표되는 복잡한 인증을 없애고 패턴, 숫자, 생체 인증을 활용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익’ 측면에서 진전을 이루어 내어, 기존 은행의 복잡성에 지친 고객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문제 1

제시문 <가>에 나타난 알고리즘 판단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과 ㉡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제시문 <나>에 언급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 규제의 정도와 타당성에 대해서 아래 (A)와 (B) 중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900±100자)

- (A) 경쟁은 알려진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권력의 강제적이고 자의적인 간섭 없이도 우리의 행위가 조정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쟁은 의식적인 사회적 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그 일과 연관된 불리한 점과 위험 요소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전망이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각자에게 달려 있다. 경제적 자유는 국가 권력을 억제하는 기능을 행사하고 이로써 정치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하이에크, 『노예의 길』
- (B) 천부적으로 보다 유리한 처지에 있는 자는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자의 여건을 향상하여 준다는 조건하에서만 그들의 행운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최대 수혜자 갑은 최소 수혜자 을과 도덕적 비대칭성의 관계에 있다. 재능, 지위와 같은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요소들의 작용으로 최대 수혜자가 된 갑은 최소 수혜자인 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일정한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 민주주의적 평등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원칙은 사회 기본 구조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판정할 특정한 입장을 선정하려는 것이다. - 롤스, 『정의론』

<다>

언어에는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힘이 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사유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언어라는 필터를 통해서 세상을 본다. 1948년 영국의 유명한 풍자소설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은 소설 <1984>를 탈고했을 때 ‘더블스피크(Doublespeak, 이중어)’라는 새로운 말이 1984년경이면 유행하게 되리라고 예언했다. 그의 소설 <1984>에서 모든 단어의 원뜻은 개인들의 독자적 사고능력을 부리째 없애기 위해 왜곡되었고, 언어는 사람들의 사고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더블스피크는 분명하지 않고 모호하며 의도적으로 계산된 언어 사용을 의미한다. 언어가 사람의 심리 상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고자 의도적으로 둘러대거나 포장한 말이 더블스피크이다. 이러한 언어 정책의 사용으로 청자는 원말이 내포한 부정적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화자의 의도대로 왜곡된 의미로 그 대상을 받아들이게 된다. 미국 영어 교사 협회인 NCTE(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에서는 1974년부터 매해 ‘The Doublespeak Award’란 상을 수여함으로써 더블스피크의 사용을 풍자하고 있다. 1974년 캄보디아

주재 미 공군 공보담당관 데이비드 오퍼 대령은 기자들에게 “여러분은 계속 ‘폭격’이라고 쓰는데 폭격이 아니라 ‘공중 지원’입니다. (You always write it’s bombing, bombing, bombing. It’s not bombing! It’s air support!)”라고 함으로써 최초의 Doublespeak Award 수상자가 되었다. 1983년에는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인류를 전멸시킬 수도 있는 MX 대륙간 탄도 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을 ‘평화수호자(Peacekeeper)’라고 불러서 이 상의 수상자가 되었다. 더블스피크는 이처럼 의도적인 언어 왜곡을 의미한다. ‘인력재배치, 전직 기회, 포괄적 효용성 제고’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 이 말들은 기업들이 ‘해고’를 대신하여 쓰는 더블스피크이다.

언어가 가지는 힘은 노동(labor)에 다른 이름표를 붙여 근로기준법과 같은 규제에 대한 대응을 용이하게 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플랫폼 기반 공유경제와 같은 깃 경제(gig economy)는 기존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고유한 어휘를 만들어 낸다. 우리는 더는 ‘노동’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영시간 계약(Zero-hours contract)’, ‘깃(gig)’, ‘인간지능작업(HIT, Human Intelligence Task)’, ‘과업(task)’, 그리고 ‘호의(favor)’라는 열정적인 용어가 노동시장의 전통적인 어휘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영시간 계약은 근로시간을 정해 두지 않고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작업자(worker)가 호출에 응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깃(gig)은 공연참여(engagement)에서 유래한 말로, 원래 연주자들이 협연하는 공연을 뜻하는 말이었지만, 소위 플랫폼 경제에서는 일회성 작업이나 거래를 의미하게 되었다. 인간지능작업은 아마존(Amazon)에서 제공하는 MTurk라는 온라인 서비스에 요청자(requester)가 과업(task)을 올리면 작업자(worker)가 수행하는 작업을 일컫는다. 미국의 여러 배달 플랫폼 기업들은 자신의 배달 서비스를 ‘호의(favor)’라고 부르고, 배달하는 ‘주자(runner)가 ‘영웅(Hero)’이 되도록 유도한다. 여러 플랫폼 기업들은 경제적 사업가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포장하고, 노동자에게는 프리랜서 사업가 혹은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라는 이름표를 붙였다. 깃 경제에서 일하는 것은 단순히 노동이 아니라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길러주는 행위로 포장하고 있다.

문제 2

제시문 <다>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사례 (A)에서 언급된 승차 공유 서비스 중개업체와 사례 (B)에서 언급된 승차 공유 서비스 종사자의 공유경제의 현실에 대한 상반되는 인식을 논하시오. (900±100자)

<p>(A) 승차 공유 서비스 중개업체인 우버(Uber) 웹사이트에서 ‘드라이버로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드라이버 파트너용 사이트(https://partners.uber.com/drive)”로 연결된다. 이 사이트에서는 “우버는 바로 당신과 같은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우버의 기사가 되어 독립계약자로 수입을 올리세요. 승객을 태우고 시내 곳곳을 누비며 일주일 단위로 보수를 받으세요. 원하는 시간에만 운전하면서 돈을 버는 사장님이 되세요.”와 같은 내용으로 이익 잠재력을 강조한다. 기사를 모집하기 위한 옥외 광고판에서는 신규 기사에게 보장되는 주간 수입(weekly income)을 강조하고 “정해진 근무시간도, 상사도, 제약도 없이” 일할 수 있다면서, 밝은 미래를 희망한다면 “우리를 헤드라이트라고 생각하세요”라고 홍보한다.</p>
<p>(B) 28세 바란은 대학에 다니면서 주 4일을 우버(Uber) 기사로 일하고 있다. 뉴욕에서 앱 기반 기사로 일하려면 택시 기사와 동일한 보험과 면허가 요구되기 때문에 보통 수천 달러의 초기 비용이 들고, 그 밖에도 연간 지출이 적지 않다. 바란은 그런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주당 400달러에 우버가 인증하고 보험에 가입된 면허 차량을 렌트해서 몰고 있다. “일주일에 최소 사흘은 일해야 차량 유지비를 댈 수 있어요. 이들은 렌트비를 벌고 하루는 유류비 같은 부대비용을 버는 거죠. 그 후에 버는 돈은 다 기사의 몫입니다.”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꼬박 12시간을 일하는 바란은 하루 250달러를 버는 게 목표다. 이 250달러는 우버 수수료와 통행료를 제하지 않은 금액이다. 그의 주간 수입 내역을 보니 800달러를 넘기지 못한 주가 대부분이었다. “난 파트너(partner)가 아니에요. 독립계약자죠. ‘파트너’는 뭔가를 공유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난 모든 비용을 내가 다 감당하거든요. 저쪽에서 나를 자르려면 언제든 자를 수 있어요. 내가 파트너였다면 안 될 말이죠.” 공유경제는 탄력성을 보장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춰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바란은 주 4일밖에 일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루 12시간씩 일한다. 깃 경제는 탄력성을 말하지만, 직장에 매이지는 않아도 일에는 점점 더 강하게 매이고 있다. 품을 팔아 돈을 벌려면 항상 대기 중이어야 하기 때문이다.</p>